日, 사찰서 만든 코인 보시금 대용 화제

현금 없는 사회 속 전통문화 새로운 형태

박영빈 객원기자

나고야 반쇼지, 코인 제작
관음보살 새겨진 작은동전
카드·모바일로 자판기 판매
사찰 기념품으로 인기몰이

최근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캐시리스(Cashless)'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불교계도 이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고찰에서 자체 제작한 코인을 경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등장해 화제다. 4월 2일, 일본의 'J-캐스트 뉴스'는 나고야 반쇼지에서 제작한 '반쇼지 코인'에 대해 보도했다.

반쇼지(萬松寺)는 일본 나고야에 소재한 선종사찰로 16세기 중반에 세워져 당시 권력자들의 후원을 받아 근대까지 크게 번성했던 고찰이다. 이후 2차대전 당시 공습으로 전소, 90년대 중반에 들어 현대식 빌딩의 형태로 재건됐다.

이곳 반쇼지에서 최근 고안한 것이 바로 '반쇼지 코인'이다. 본존불인 11면 관세음보살상의 모습이 새겨진 작은 동전으로 경내에서 보시금, 혹은 경내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반쇼지 경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판매 중인 반쇼지 코인은 1개에 500엔(한화 약 5천 원)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최대 10개 들이 패키지로도 구입할 수 있다. 자판기 역시 현금결재는 물론 카드나 모바일 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소문이 나고 있는 반쇼지 코인은 누리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항상 잔돈이 없어서 보시금을 낼 때마다 고민했는데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저렇게 사찰 전용의 대체통화를 만든다면 보시금의 도난문제도 줄어들어 운영 측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안자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평했다.



반쇼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쇼지 코인', 절의 본존인 11면 관음상이 찍혀있다.
사진출처=J-캐스트 뉴스

반쇼지 측은 "반쇼지 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고안됐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사찰 참배는 동전을 보시함에 던져 넣어 기원하는 방식이기에 그러한 참배법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 끝에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반쇼지 코인은 경내에서 보시금이나 기도접수, 공양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거스름돈은 내지 않고 있다. 동전의 형태지만 참배자가 이미 구입한 물건이기에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사찰 측은 "기념을 위해 구입하는 참배자도 있는 만큼 절에서 통화로 회수된 코인은 재사용하지 않고 자판기에는 언제나 새로 주조된 코인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반쇼지의 주지 다이토 겐유 스님은 "계획 자체는 5~6년 전부터 생각했다. 당시 보시함의 밑판을 뜯어서까지 보시금을 훔쳐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회적으로도 캐시리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시국을 겪으면서 실제 현실화된 것은 지난달부터"라고 말했다.

스님은 SNS의 긍정적인 반응들에 놀라면서 이렇게 호평일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스님은 "사실 교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진행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호응에 자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방식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 그저 관습적인 방법들만을 유지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그 절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현재 불교계의 고민을 지적했다.

작가 루스 오제키 "불교는 나의 영감"

하버드대 행사 '작가가 말하다'서 불교 애정 드러내

장편 소설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을까〉로 맨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루스 오제키(Ruth Ozeki)가 "불교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글을 쓰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제키는 3월 30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작가가 말하다' 행사에서 자신의 작품 활동에 불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하버드대 마힌드라 인문학 센터는 '작가가 말하다'를 주제로 매회 유명 작가들을 초대해 강연회를 열고 있다.

오제키는 2022년 3월 출간해 2022 영국여성작가대상(the United Kingdom's 2022 Women's Prize)에서 수상한 최신작 〈형태와 공허함에 관한 책(The Book of Form and Emptiness)〉의 한 구절을 읽으며 행사를 시작했다. 이 책은 무생물의 소리를 듣는 소년의 이야기로 불교의 공(空) 사상과 고통에 관한 소설이다.

오제키는 "'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명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라며 "그러나 광대하고 또 광대한 바다를 '공'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했다. "지평선이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닌, 거대하고 끝이 없는 공허의 바다"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후에 종교에 귀의한다"는 오제키는 "나의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보며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불교와 명상을 통해 한 인간의 변화를 돌아보고,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맞게 되면 새로운 책임을 배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불교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불교는 계속해서 나에게 생각할 것을 던져준다.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글을 쓰게 된다"고 했다. 특히나 불교 명상과 관련해선 "나는 본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웃어 보이며 "명상을 통해 인내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사진출처=하버드 크림슨

루스 오제키는 당초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로 활동했고, 첫 번째 영화인 '조화의 몸'(Body of Correspondence, 1994)은 프란시스코영화제에서 '뉴비전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후 작가로 전향한 그는 〈My Year of Meats〉(1998), 〈All Over Creation〉(2003) 등 다수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특히 그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인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을까〉는 2013년 맨 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라 주목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몽골불교에 새로운 지도자 공개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 환생자
몽골·중국정부 공식 입장 없어

몽골불교의 최고지도자로 존경받는 제쭌 담빠 후툭투의 10번째 환생자가 공개됐다. 3월 29일 아시아 정치외교 전문 외신인 '더 디플로맷'은 달라이라마가 공개한 몽골인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며 향후 티베트와 몽골 불교계, 중국정부와의 갈등을 시사했다.

제쭌 담빠 후툭투는 몽골불교의 최고지도자로 외몽골이 공산화 되기 전까지 내몽골의 짱갸 후툭투와 함께 몽골 불교계를 이끌었다. 특히 8대 제쭌 담빠 후툭투는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에서 독립을 선언한 외몽골이 대칸으로 추대하여 복드 칸이라는 이름으로 즉위하여 독립운동을 이끄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몽골의 공산혁명 세력도 그를 존중하여 그의 입적 후에야 몽골을 정식 공산국가로 천명했다.

그러나 9대 제쭌 담빠는 몽골이 공산화 된 이후에 티베트에서 환생했으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신분이 비밀에 붙여졌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이후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으며 90년대에 들어 몽골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에야 그 신분이 공개됐다. 이후 9대 제쭌 담빠는 인도와 몽골을 오가며 포교활동을 이어갔다.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의 환생자로 소개된 소년(좌측)이 달라이라마에게 예물을 공양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당시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국정부는 "몽골과 중국 양국 관계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며, 몽골정부가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제쭌 담빠를 공인할 경우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9대 제쭌 담빠는 몽골 시민권을 취득, 2011년에 공식적으로 몽골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취임하였고 이듬해 울란바토르에서 입적했다. 이때 9대 제쭌 담빠는 유서에서 자신의 환생자를 찾는 것은 전적으로 달라이라마에게 정해져있으며, 몽골에서 다시 환생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16년 마지막으로 몽골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는 이미 몽골에서 환생했으나, 아직 너무 어리기에 공표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중국은 다시금 즉각 반발을 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달라이라마는 몽골불자들의 요청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약 6천 명의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상의 상석에 앉은 몽골인 소년을 소개하며 "오늘 우리는 기쁘게도 몽골의 제쭌 담빠 린뽀체의 환생자와 함께 한다"고 조용히 공개했다. 소년은 법회 중에 몽골불자들을 대표하여 달라이라마에게 공양물을 전달하는 의례 등을 봉행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달라이라마께서 10대 제쭌 담빠를 대중 앞에 소개하시고, 법회 후 몽골불교계의 주요한 대표단들과 잠시 만남을 가지셨다"고 밝혔다. 현재 몽골불교계와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내지 않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발표에 몽골은 물론 세계 티베트 불교계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3대부터 9대까지의 제쭌 담빠가 티베트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350년 만에 몽골 출신의 제쭌 담빠가 탄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신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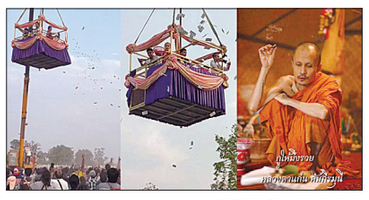
'알라딘'된 태국 스님…하늘서 현금 뿌려

46번째 생일·출가 24년
현금 15만 바트 신도들에

태국의 한 스님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하늘에서 현금 약 15만 바트(한화 약 576만원)를 뿌려 화제다.

지난 3월 31일 더 타이거(The Thaiger)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수린 주(州)에 위치한 사찰에서 프라 크루 폿 수완나랏(Phra Khru Phot Suwannarat) 스님이 자신의 46번째 생일과 출가 2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늘에서 현금 약 15만 바트를 뿌렸다.

스님은 이를 위해 직접 크레인 기사를 고용했다. 크레인을 탄 스님은 알라딘처럼 하늘을 날며 땅에서 손을 흔들며 자신을 축하하는 신도들에게 현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더 타이거

태국 승려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부를 축적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려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실정이다.

해당 매체는 "승려들의 대부분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일부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수완나랏 스님은 자신의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며 "좋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